차즘차즘 6고

**S1 – 해안가, 낮**

일렁이는 바다 옆을 걷는 세 사람. 가족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어색함이 느껴진다.

다정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숙(여, 45)과 경제(남, 41)와 달리 다솜(여, 17)은 그들과 조금 떨어져 있다. 미숙은 그런 다솜이 신경 쓰이는지 계속 다솜의 뒷모습을 쳐다본다.

다솜은 무리에 떨어져 홀로 서있는 갈매기를 발견하곤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앉는다.

갈매기를 쳐다보는 다솜의 옆에 어느새 다가온 미숙, 옆에 앉아서 다솜의 손을 꼭 쥐며 말한다.

*미숙*

*쟤 좀 봐, 외롭지도 않나봐.*

다솜은 자신의 손을 잡은 미숙의 손을 보는데, 미숙의 약지에 반지가 있다.

조금 미소를 띠던 다솜의 얼굴이 점점 무던해진다. 그런 다솜을 바라보는 미숙.

다솜은 말없이 일어선다. 홀로 있던 갈매기에게 달려가며 그것을 쫓아낸다.

다솜을 바라보는 미숙과 경제 그 위로 타이틀

**TITLE <차즘차즘>**

**S2 – 해안가 벤치, 낮**

벤치에 앉아 있는 다솜과 경제.

*경제(V.O)*

*다솜이는 어디로 가고 싶어?*

*다솜*

*(다른 곳을 보고 있다가 놀라며) 네?*

*경제*

*다솜이도 같이 갔으면 해서.*

*다솜*

*제가 거길 왜 따라가요.*

*저는 괜찮아요.*

대답하지 못하고 멋쩍은 경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흐른다.

무안해하는 경제는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말을 건넨다.

*경제*

*그.. 다솜아, 고등학생이 싫어하는 나무가 있다던데..*

*너 혹시 아니?*

*다솜*

*(말없이 경제를 쳐다보다)*

*… …*

*(정면으로 시선을 돌린다.)*

*경제*

*흠흠… 야자나무…라고…*

*다솜*

*아…네…*

정적을 깨고 다솜이 대화를 시작한다.

*다솜*

*아저씨는 우리 엄마 어디가 좋아요?*

*경제*

*(쑥쓰러워하며) 내 시답잖은 농담에도 잘 웃어주는 사람이야.*

*너무 착하지..*

다솜은 경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시선을 앞으로 돌린다.

*다솜*

*에이, 아닌데*

*우리 엄마 원래 잘 안 웃어요.*

*그거 다 아저씨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다솜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가볍게 웃어보이는 경제.

다솜이 또다시 말을 시작하자 조금 놀란 얼굴로 다솜을 쳐다본다.

*다솜*

*요리도 잘 못해요.*

*아저씨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엄마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도 공부하는 딸 아침은 안 굶긴다구*

*매일 된장찌개도 끓여주시는데,*

*그런 엄마가 고맙고 미안해서 저는 매번 거짓말을 해요.*

*‘맛있다’고.*

*…아저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없이 다솜을 쳐다보기만 하는 경제.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미숙을 보곤 슬쩍 웃는다.

그리곤 다시 다솜을 보며 다정히 말한다.

*경제*

*내가 하면 되지 않을까?*

다솜은 말없이 경제를 바라본다.

어느새 두 사람 옆에 도착한 미숙. 벤치 뒤에 서서 두 사람 사이에 얼굴을 들이민다.

*미숙*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어?*

*경제 V.O*

*아 우리 밥 뭐 먹을지 이야기 중이였지!!*

*미숙 V.O*

*그래? 뭐 먹기로 했어? 빨리 가자*

다솜은 미숙을 보다 벤치에 기댄 미숙의 손을 본다. 약지에 껴졌던 반지가 빠져있다.

**S3 – 길거리 사격장, 낮**

다솜 미숙 경제, 걷고 있는 세 사람. 다솜은 미숙과 경제를 슬쩍 바라본다. 미숙은 다솜의 시선을 느낀 듯 미숙은 슬며시 웃는다. 다솜은 미숙을 말없이 바라보다 천천히 발걸음을 늦춘다. 다솜이 바라보는 곳은 오래된 사격장이다.미숙과 경제는 사격장을 지나쳐 걸어간다. 홀로 우뚝 서 있는 다솜.

다솜은 이끌리듯이 총을 집어 든다. 사격장 사장(70)은 보던 TV 앞에서 슬며시 일어나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사격장 사장*

*열 발에 3000원.*

사장의 말에 돌아보는 미숙과 경제. 사격장 앞에 서서 과녁을 바라보는 다솜.

*사격장 사장 V.O*

*한 발 쏘고 가세요~*

cut to

과녁에 맞는 총알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총을 쏘고 있다. 경제, 백발백중이다. 미숙은 자신의 총을 쏘다가도 간간히 경제와 그의 과녁을 보며 신나게 웃는다.

그에 반해 다솜은 힘들어 보인다.

*경제 V.O*

*다솜아 총을 어깨랑 최대한 밀착시키고…*

*다솜*

*……(총을 바라보다 경제에게 눈을 흘긴다.)*

*경제 V.O*

*어..어!! 그렇지 ..*

다솜은 심호흡을 한 후 조심스럽게 총 방아쇠를 당긴다. 과녁에 맞자 신나서 웃는 다솜.

세 명을 바라보던 사격장 사장은 지나가며 말을 툭 뱉고 간다.

*사격장 사장*

*아빠가 알려준 대로 하니 잘 하네*

다솜은 사장의 말에 신경이 쓰여 총을 가만히 내려놓는다.

경제는 머쓱한 듯 미숙과 다솜을 번갈아보며 웃는다.

다솜은 경제의 시선을 모른 척하며 갑자기 총을 들어 같은 곳에 연달아 발사한다.

두 사람보다 먼저 끝난 다솜은 총을 바닥에 툭 내려놓는다.

cut to

*사격장 사장 V.O*

*아이고 수고하셨어요~여기 상품!*

포장상자를 건네주는 사장의 손과 상자를 받는 경제의 손.

경제의 진주 팔찌는 다솜에게로 향한다.

*경제*

*다솜아, 이거 다솜이 할래?*

*다솜*

*네?*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자신의 팔목을 만지는 다솜.

**S4 - 해안가, 낮**

쨍쨍하게 떠있는 해. 다솜은 터벅터벅 걸어간다.

쉬익쉬익 파도소리에 들려오는 팔찌가 달랑거리는 소리. 다솜은 멈춰서 팔찌를 바라본다.

팔찌를 빼고 모래 위에 버리는 다솜. 다솜은 다시 터벅터벅 걷는다.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는 다솜. 다솜은 다시 뒤로 가서 팔찌를 주우려고 한다.

다솜이 주우려고 하자 이상하게 모래 속으로 들어가는 팔찌.

다솜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지만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다.

쭈그려 앉아 모래를 걷어 내보는 다솜. 팔찌에 있는 진주가 보여 꺼내려고 한다.

하지만 마치 다솜이를 놀리 듯이 안으로 들어가는 팔찌.

다솜이는 불안해하며 허겁지겁 땅을 파기 시작한다. 다솜은 옷과 머리에 모래투성이이다.

점점 깊어지는 땅. 구멍 주변에는 쌓아 올려진 모래들이 보이고, 깊게 파진 구멍 안은 차가워 보인다. 쭈그려 누워있는 다솜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보인다.

고요한 바다. 파도소리만 들린다.

**S5 - 해안가, 새벽녘 (다솜 환상 씬)**

파도 소리와 바다 바람소리가 분다. 평상 위에 흰 천이 바람에 펄럭인다.

평상에는 덩그러니 혼자 누워있는 다솜이 보인다.

쭈그려 누워있는 다솜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편안함을 깨고 들려오는 미숙의 목소리에 다솜은 눈을 뜨고 일어난다.

*미숙 V.O*

*박다솜!*

**S6 – 해안가, 밤**

편안함을 깨고 들려오는 미숙의 목소리. 누워있는 다솜은 미숙의 목소리에 일어난다.

다솜 얼굴에는 땀과 머리카락이 묻어있다.

해수욕장은 여전히 바람 한 점 없고 잔잔하다. 바닷가는 붉게 변해간다. 미숙을 쳐다보다 고개를 내리는 다솜.

*미숙*

*(깜짝 놀라 크고 높은 목소리로) 너 여기서 뭐해!*

미숙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다솜.

*다솜*

*(중얼거리지만 들리도록)누워있지*

*미숙*

*(화를 참으며)그니까 여기 왜 누워있는데*

*다솜*

*우리는 여기 왜 온 거야?*

미숙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앞으로 걸어 나온다. 허리를 숙여 다솜의 팔을 잡아 올린다. 위로 당겨지는 다솜. 위로 끌려 올라가지 않게 다솜도 미숙을 자신 쪽으로 당긴다. 다솜이 당기자 몸이 앞으로 끌려가는 미숙. 넘어지지 않기 위해 다리에 힘을 주고 이제는 양손으로 다솜을 당긴다. 다솜도 역시 몸을 뒤로 젖히며 양손으로 다시 당긴다. 팽팽한 두 사람 마치 줄 없는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한번 서로 자기의 방향으로 힘을 주며 당기는데, 서로 힘이 빠져 자빠진다. 서로 거칠게 숨만 쉰다. 다솜은 넘어져 있는 미숙을 두고 혼자 힘으로 구덩이에서 기어올라와 미숙의 반대로 간다. 미숙이 다솜을 부르는 목소리에 더욱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S7 – 해안가, 밤**

다솜의 힘 빠진 발걸음 소리와 하늘을 수놓는 폭죽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 다솜은 바다를 둘러보며 걷는다. 다솜의 속도에 맞춰 따라가는 미숙. 다솜은 발에 뭐가 걸렸는지 걸음을 멈춘다. 미숙도 다솜과 함께 걸음을 멈춘다.

다솜이 바라보는 곳에는 홀로 떨어져 버려진 폭죽 하나를 발견한다. 한참 폭죽을 바라보다 줍는 다솜. 깜깜한 하늘을 바라보다 폭죽을 들어 올린다. 아련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다솜. 다솜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색의 빛들이 비친다. 미숙은 가만히 다솜의 뒤에서 다솜을 바라본다. 넓은 바닷가에 소리가 나지 않는 폭죽을 들고 있는 다솜. 손목에 팔찌가 끼워져 있다.